

학생성공시대<sup>2</sup>를 여는 인천교육

제1회 인천 초등  
수업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 2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수업 이야기



# 라라라~ 유튜브 라방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일지

- 교간 전학공 미래 교육 수업 나눔터 BTS -

인천간재울초등학교 교사 **유미경**

## 1. 시작하며

오늘도 우리는 청라 6th 작은 카페에 모여서 쫄깃쫄깃한 한 시간 동안의 변화무쌍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마쳤다.

## 2. 왜? 우리 연구회 회원들은 이렇게 열정을 불사르는 것일까?

우리들은 승진을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다. 단지 우리는 숨겨진 보물 찾기처럼 묵묵히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 교사로서의 그들의 삶의 열정과 노하우들을 배우고, 더 많은 교사들에게 그들의 열정을 알리고 싶어서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 것이다.

## 3. 우리가 굳이 라이브 생방송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모신 초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댓글로 참여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실시간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에는 정해진 시나리오가 없다. 다만 한 시간 동안의 방송을 위한 흐름만 존재할 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라이브 생방송의 제 3의 출연자인 댓글로 참여하는 교사들이 있어서이다. 댓글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질문과 댓글에 따라 우리의 라이브 생방송은 유연하게 변화하며 진행된다. 정해진 대본이 없어서 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의 라방은 그 어떤 방송보다 더 스릴있고 재밌다. 오늘도 우리는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진행 모습

이렇게 쫄깃쫄깃한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마쳤고, 우리는 미래 교육 수업 나눔터 BTS 회원들이다.

#### 4.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은 2018년 디지털교과서 수업 연구회 BTS(Bridge for Teachers Smart education)로 출발하였다. 우리 연구회는 주로 정기적으로 마이크로 티칭을 열어 선생님들께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나눔을 실시해왔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하면 매달 마이크로 티칭을 하는 것이었고, 나름 입소문도 나서 공문을 보고 새로 우리를 찾아오는 선생님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생소해하는 분들이 한 두분 찾아오시면서 고정적으로 매달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런 분들은 지금의 우리 연구회의 주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 함께 했던 분들 중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를 떠나가기도 하고, 새로 찾아 오신 분들도 늘어갔다. 자발적인 교간 연구회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 잡지 않고, 오시는 분 또한 언제든지 오픈하여 맞아 들이고 있었다.



인천 초등 디지털교과서 수업 연구회  
BTS 마이크로 티칭 연수 (2019)

#### 5.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코로나 19는 우리 연구회의 대면 마이크로 티칭에 큰 타격을 주었고,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연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이 순간이 우리 연구회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때 그 순간,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시작했던 것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었다.

#### 6. 2020년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시작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맨바닥에 해당이었다. 그때 회장인 나는 나대유 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4학년 사회과, 과학과 전 차시 수업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었다. 인디스쿨에 홍보도 하고, 나름 입소문이 나서 서서히 구독자도 늘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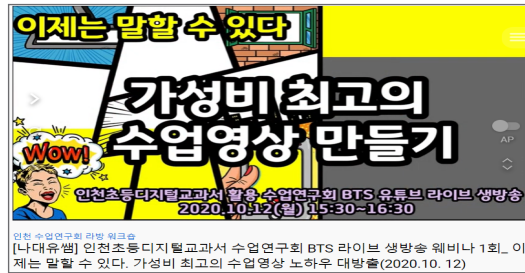


그때 한 회원이 나에게 던진 한마디.. “ 회장님 , 우리 지금부터 나대유 쌤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생방송 해요~” “ 우리가 할 수 있을까?” “ 그냥 해봐요 ~”

이렇게 우리는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무모하게 그 길을 가게 되었다.



1회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진행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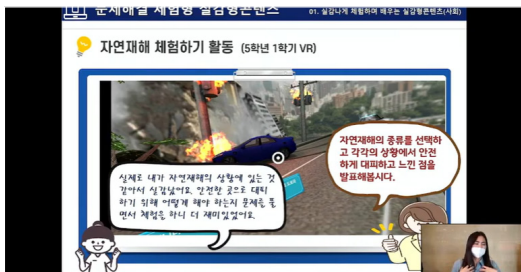


1회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2020.10.12.)

## 7.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연구회 BTS ..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은 실시간 참여 댓글과 라이브 생방송 영상의 조회수에 따라 우리의 생방송을 낮낮이 평가 받는다는 점에서 짜릿짜릿하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프다.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디지털교과서 및 에듀테크와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출연하면서 라이브 생방송을 이끌어 나갔으나,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우리만의 수업 나눔터였으므로, ...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끝판왕 (2021.12.02)



너랑 나랑 위두랑 수업 활용 (2021.12.30)

## 8. 2022년 미래 교육 수업 나눔터 BTS로 거듭나다.

우리의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2022년은 새롭게 미래 교육 수업 나눔터 BTS로 거듭났다. 우리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우리의 수업 나눔터가 아닌 많은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의 공간으로 만들어보기로 했다.

▣ 미래 교육 수업 나눔터 BTS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의 지향점 ▣

첫째, 라방의 주제에 대한 유연함을 갖자.

둘째, 출연진을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초대 손님을 모셔서 우리도 함께 배우는 형태로 하자.

셋째, 라방을 자주 열어보자.

넷째,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가 유튜브 라방을 실시하는 순서는...

유튜브 라방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초대 손님을 섭외하는 일을 먼저 한다. 사실 초대 손님을 섭외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기꺼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라방을 진행했던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꺼려하시다가도 막상 시작하면 너무 재미있게 자신들의 수업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나가셨다. 역시 ~ 교사는 교사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그분들 역시 라방이 끝나고 나서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하셔서 라방을 진행하는 우리들로서는 커다란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라방 주제와 출연진, 일정이 정해지면 리허설을 한다.

우리 라방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원고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 어떤 주제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했다.

우리의 치열한 리허설 현장에서 출연진들과 운영진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고민하면서 함께 구성을 해 나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튜브 라방이다. 시작하기 전까지 최대한 준비를 한다고는 하나, 우리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므로 때론 실수들이 있으나, 이 또한 우리 유튜브 라방의 재미가 아닐까 한다.

## 9. 우리가 올해 한 해동안 기획했던 라방은 ..

올해 우리가 기획했던 라방은 나는 ~ 교사다. 시리즈였다.



나는 교사다 - 2인 2색 교사 이야기 (2022.04.27)

1회는 나는 교사다 - 2인 2색 교사 이야기, 이 시리즈 라방의 첫 회를 하고 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댓글러들이 참여해주었고, 라방이 끝났으나 꾸준히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출연했던 두 선생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기뻐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가 조명하고 싶었던 것은 승진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수업 지도를 하는 교사가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숨 쉬고, 함께 뛰어 놀고 배우는 것이 좋아서 오늘도 이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50대 초반, 50대 중반 교사의 깊이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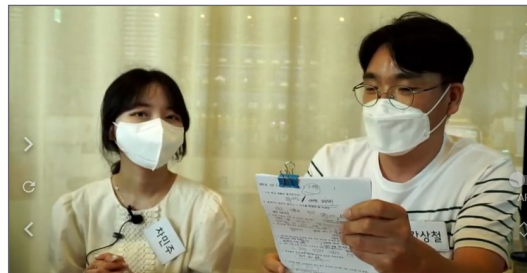
2회는 나는 영양교사다. 같은 교직에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영양교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영양교사의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식품 영양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3회는 나는 신규교사다.

이제 갓 교사가 된 신규교사의 참신함과 좌충우돌 교직 현장에서의 힘들음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선배 교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는지 알 수 있는 오래된 학생들의 편지 모음과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성인이 된 제자의 댓글로 우리의 라방은 감동의 순간을 맛 보았고 많은 학급 운영 노하우를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영양 교사다 - 영양 교사와 함께하는 유쾌하고 맛있는 토크(2022.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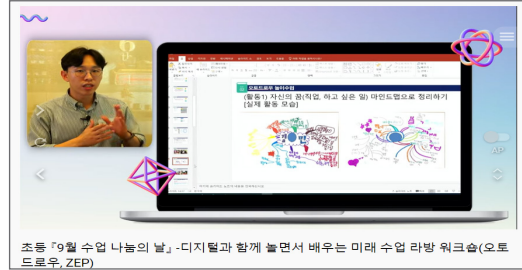


나는 신규 교사다 - 신규교사와의 상큼한 토크쇼 (2022.06.22)

그리고, 특별 기획 형태로 초등 과정중심평가 모델 개발사업 연구회, 초등 9월 수업 나눔의 날, 인천 서부 초등 리더학급 라방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에듀테크로 과정중심평가에 날개달기(2022.09.07.)




초등 9월 수업 나눔의 날 (2022.09.21)

이렇게 우리는 그저 마냥 라방이 좋아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다.

라방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치열한 교직의 삶을 보면서 감동과 감사와 전율을 느끼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는 배움을 하고 있다. 우리 인천의 교사들을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사들을 만나면서 교사로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우리는 라방을 했다. 여전히 치열하게...

그리고, 우리의 라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교 폭력을 잠재우는 학교 운영 노하우 (2022.10.25)





# 함께 가면 더 좋은 길\_뜻 모아, 배움 모아, 우리들의 전.학.공 이야기

인천대화초등학교교사 김지혜

## 1. 여건 조성 및 전.학.공 조직

### “그래서, 배움의 여정을 준비하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팬데믹 상황은 경제, 문화, 생활 등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꾀한 분야는 바로 “교육”과 관련한 분야인데,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의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비대면 화상 회의, 에듀테크 디바이스 등 평소 잘 접하지 않았던 생소한 매체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며 학생들의 교육에 힘써왔다. 특히 멀티미디어 기기 활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의 경우 개별 학생들의 특성 및 니즈(needs)에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겐 너무 높게만 느껴졌고, 점차 커져만 가는 학생들 간의 교육격차 감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묘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즈음 특수교사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교과연구회 또한 점차 해체되기에 이르러 특수교사들의 심리적 고립감은 매우 커졌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 또한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또 두려웠는데, 이 무렵 새로이 발령을 받은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이 맡은 학급 및 학생들을 돌보며 각자도생(各自圖生)하던 시기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도움을 요청하기에도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미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속해있는 교육지원청의 경우 인천시의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해마다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의 전입 빈도가 높은 반면, 타 교육지원청 및 타시도로의 전출 또한 매우 빈번히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녔다. 그로 인해 중견교사의 비율보다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실정인데,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많다 보니 중간 정도 경력의 우리들로서도 어떠한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지 못해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다.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같이 생각을 모으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긴 할텐데..”라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래, 일단 한 번 모여보자. 함께 모여 같이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며 조심스레 주변 선생님들께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도 나의 이 무모한 항해에 흔쾌히 동행해 주겠다고 하셨다.

나의 신규교사 시절 항상 마음에 담아 두었던 한 가지 생각, “내게 정신적 지지가 되어주는 동료 교사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무엇이든 할 것 같다”는 간절함, 그 절실함이 우리를 하나의 모임으로 이끌게 되었다. 고경력 교사들에겐 수업 성찰의 기회와 나눔의 미덕을 베풀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저경력 교사들에겐 든든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배움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그렇게 우린 함께 가면 더 좋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보기로 하였다.

## 2. 슬기로운 전.학.공 운영 및 수업 적용 사례

###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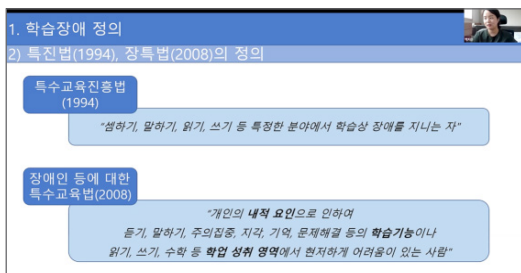
올해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분야는 기초학습영역 중 “수학”과 관련한 주제이다.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문해력 및 기초학력 저하 현상! 이에 더하여 마음의 백신 처방이 시급한 학생들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학습부진학생 및 느린학습자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이슈가 비단 일반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끼리 마음을 모으며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의 비전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후 “on&off line에서도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총체적인 기초학습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한 뒤, “학습지원대상학생(학습장애, 난독증, 학습부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김애화 외; 2018)들의 학력격차 감소”를 전.학.공 활동의 최종 배움 목표로 정해보았다. 인지적 능력 향상과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심리미술)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모인 우리들!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 이름의 의미 및 구성 배경은 아래와 같다.

뉴 노멀시대, 학생들의 학력격차 감소를 해결해 줄 블렌디드(blended)수업의  
바리스타들이 댔다!! 학습지원학생들을 **바**라보고, **리**(이)끌어 주며,  
**스**스로 학습에 대한 의지를 **타**오르게 만들 『기초학습 **바.리.스.타**』 프로젝트가  
학습력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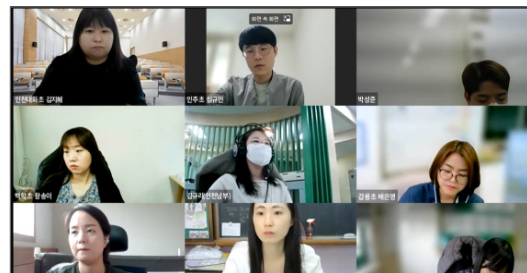
4월 첫 만남 이후 가장 먼저 만나본 배움 활동은 “학습장애의 이해 및 증거기반 수학지도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5월 공개 워크숍이었다. 현직 교사이자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특수교사분을 강사님으로 초청하여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의 이해, 수학 학습장애 및 증거기반 지도방법 모색을 주제로, 총 2회기의 워크숍을 진행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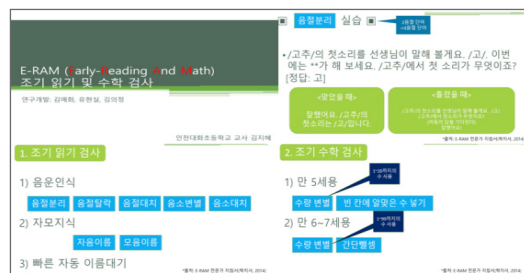
이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수학)학습장애 및 학습부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증거에 기반한 수학 지도 방법 및 사례 나눔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 지도에 대한 방향성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5월 공개 워크숍 활동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활동 모습(5월 공개 워크숍, 비대면 진행)



6월에는 학생들의 정확한 기초학습능력 측정을 위한 “조기 읽기 및 수학검사(E-RAM) 이해 및 검사도구 실습 활동”이 칠통마당 생활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배움 활동을 통해 진단평가도구 활용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교사들 간 활발한 토론 활동을 통해 신뢰로운 진단결과를 도출해보기도 하였다. 아울러 배움 활동 이후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진단평가를 시행해보는 과정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조기 읽기 및 수학 능력에 따른 증거기반 교수-학습활동이 실시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던 것 같다. 활동 모습 및 배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 모습(6월 E-RAM 배움활동)





그림책방 &lt;마,쉬&gt; 전경

한여름 태양의 열기만큼이나 선생님들의 열정 또한 매우 뜨겁던 7월의 어느 날엔 “수업지원자료 제작 및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그림책테라피 워크숍을 기획해 보았다. 본 배움 활동은 인천시 동구 배다리에 위치한 그림 책방 <마,쉬\_마음 쉬는 시간>에서 진행되었는데, 100년이 넘는 한옥 책방에서 진행된 활동이라 그런지 더욱더 의미있었다. 전문적인 그림책테라피스트 강사님과 그림책 테라피에도 참여하고, 수학과 관련한 그림책을 탐색·논의해 보았으며, 추후 우리 공동체의 최종 목표인 수업지원자료(그림책) 제작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의를 이어 나갔다. 수학 지도에 대한 의지와,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던 다양한 그림책들로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따뜻했던 자기돌봄의 시간! 이달의 활동모습 및 수업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활동 모습(7월 그림책 테라피)



수업 적용 사례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향기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던 9월, “현장 적용을 위한 심리미술 전문가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총 2회기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1회차 배움 활동은 실습 위주의 활동이니만큼 연수구 소재 쿠킹스튜디오를 직접 대관하여 심리치유 및 정서순화를 위한 식재료 활용 푸드테라피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의 공식적인 나들이(?)에 매우 기뻐하시던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푸드테라피를 통해 각종 업무들로 소진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정서 순화의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교사 자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던 날! 이 날 만들었던 달달한 케이크처럼, 우리들의 앞날도 달콤함으로 충만하길 기대해 본다.

2회차 배움 활동은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심리미술 수업의 실제 사례를 명화를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이상 달려야만 당도하는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소재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님을 대면으론 뵈지 못해 무척이나 아쉬웠지만, 멀게만 느껴지던 명화들을 수업 활동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평소 미술 수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어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본 배움 활동을 통해 우리들의 예술적 소양과 미적 감각이 아주 쏙~금 더 향상되었길 기대해본다. 활동 모습 및 수업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활동 모습(좌:1회차, 우:2회차 배움 활동)



수업 적용 사례

청량한 하늘빛이 매일매일 아름다운 10월, “그림책 제작을 위한 첫걸음, 문해력 향상을 위한 증거기반 읽기지도 실제”라는 주제로 공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우리 공동체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수업지원자료(그림책) 제작의 밑거름이 될 읽기 쉬운 그림책 및 읽기 자료에 대해 탐색해 보았고, 증거에 기반한 한글 프로그램 소개 및 읽기 지도 사례 나눔을 통해 그림책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다질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 누구에게나 쉽고,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미있는 그림책의 힘! 이에 우리들의 훌륭한 교수 능력이 합쳐진다면 최고의 수학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열기가 뜨거웠던 활동 모습 및 수업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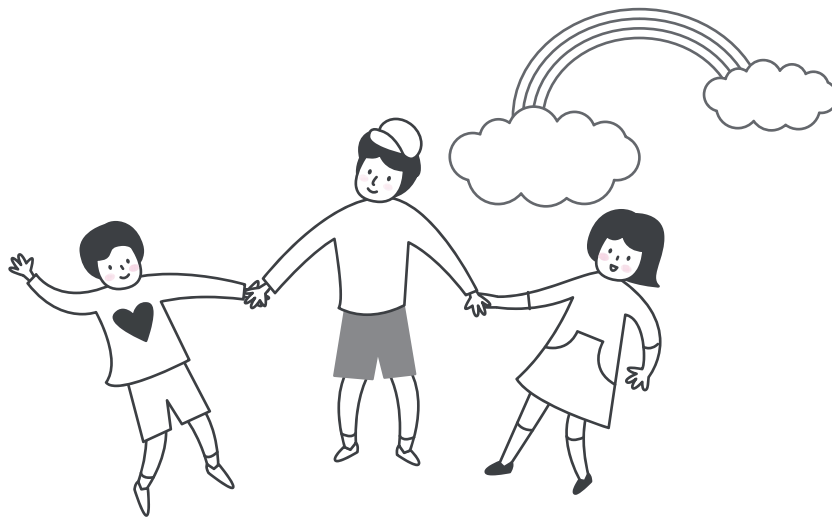


활동 모습(10월 공개 워크숍)



수업 적용 사례

이후에도 그간의 수학 지도사례를 공유해보는 수업 나눔, ‘수학’영역 수업지원자료(그림책 및 e-book) 공동 디자인 및 제작, “모두를 위한 읽기 쉬운 수학 그림책” 발간 등 중요한 몇 가지의 과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간 알토란처럼 잘 모아온 영롱한 배움의 구슬들을 알알이 잘 꺾어 멋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볼 예정이다. 꿈이 있기에, 함께 이기에 더 아름다운 우리들! 더 멋진 배움의 향로를 향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전진 중이다.



### 3. 운영 성과 및 결과 성찰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함께 떠나는 행복한 배움 여행, 이 즐거운 여정에 함께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참여 소감을 나누어 주셨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며 항상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전학공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A교사, 교육경력 3년차)”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사이에서 정서까지 함께 나누면서 든든한 동료 선생님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B교사, 교육경력 4년차)”

“다른 선생님들의 교육적 가치관, 수업 진행 활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 내용과 학생 지도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내 가장 많은 교과를 지도하는 국어, 수학 과목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C교사, 교육경력 2년차)”

“신규교사 때부터 전학공에 참여해보니 여러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수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국어, 수학 기초학습 지도 역량이 향상되어 좋았습니다. (D교사, 교육경력 2년차)”

“저경력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최신 이론도 잘 알게 되었고, 새로운 기기에 대한 정보도 잘 알 수 있어 좋았어요. 교육에서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경력 선생님들도 더 많이 알게 되어 재미있었어요. (E교사, 교육경력 16년차)”

아직 마주하지 못한 시련과 좌절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교사 서로 간의 협력을 추구하고, 배움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성장해가는 배움의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들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차게 더 힘차게 나아가보자.

“모두가 행복한 교실 수업을 위해,  
함께 가서 더 좋은 우리들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 교사, 수업을 통해 성장을 말하다!

# 기록과 나눔의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학년

인천서흥초등학교 교사 정명근

## 1. 기억이 안 난다면, 기록하자!

어쩌다보니, 6학년을 연속으로 6년째 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긴다.

“선생님, 작년엔 이 행사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작년엔 이 수업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6학년 학생들 어때요?” 등등

그럴때면, 어떤 것들은 쉽게 대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 한 순간들이 많다. 그리고, 누군가의 질문이 없더라도 나 혼자서 이전엔 이 주제로 어떤 수업을 했더라?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지? 이렇게 지난 기억을 떠올리느라 시간이 필요한 때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어떤 순간에는 그냥 여차저차 수업이든 행사든 다 지나가고 난 후에서야, ‘아! 맞다. 작년에도 이랬었는데, 까먹고 또 같은 실수를 해버렸네’라고 아쉬워할 때도 많다.

어떻게 하면 이런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서로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의 함께 성장하기 프로젝트는 이런 물음들 속에서 시작된 셈이다.

## 2. 온라인 동학년 협의실 구축

만나서 소통하면서 서로 보완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교사들의 생활이 그게 쉬운가.

“오늘 화요일이지만, 잠시 모여서 수업 할 것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오늘 00지원단 협의가 있네요.”

“선생님, 저랑 3반 선생님은 마을 둘러보기를 잡아놔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주에 2번은 모이면 좋겠다고 2월에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상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바로 ‘온라인 동학년 협의실’. 그리고 그 공간은 메신저처럼 각종 내용들이 휘발되며 얼마후면 잊혀져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한 기록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잊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냥 한글 문서든 어디든지 간에 해왔던 수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해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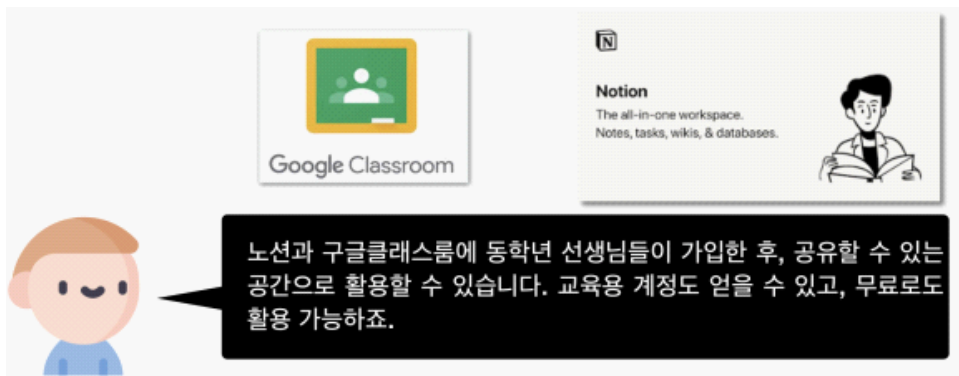


되는 것일테니 말이다.

언제 어디서나 기록, 공유, 협업이 가능한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함께 나누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터를 잡아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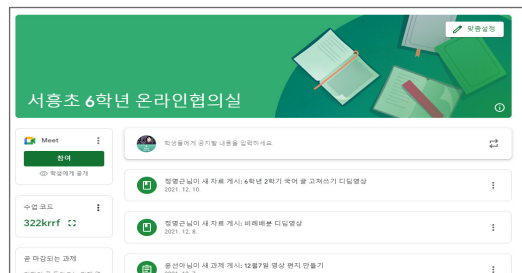
고심 끝에 새학년이 조직된 2월에 교육과정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 앞으로의 1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용할 플랫폼을 결정하여 간단하게 동학년 연수를 진행했다. 바로 노션과 구글클래스룸.



학급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각자도생에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로 공감하며, 서로의 수업과 학교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누기 위해서 동학년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해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 동학년만의 온라인 협의실이 구축이 됐다.



동학년 Notion page(온라인협의실)



구글클래스룸(수업나눔 및 자료실)



### 3. 학년과 함께하는 교사교육과정 디자인

온라인 협의실 구축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6학년 교육과정 디자인이었다. 항상 만나서 교육과정 디자인을 할 순 없었기에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는 노선에 교육과정 디자인 주제를 설정한 후, 각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기록하면서 실제 오프라인 협의 때 해당 내용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과정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교육과정 디자인 과정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 논의사항은 온라인에서 댓글을 통해서도 소통이 되었고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 중 언제라도 다시 접근해서 살펴보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대표적으로는 1학기 기후위기를 주제로 했던 ‘Save the earth for us’가 있다. 현재의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배움은 무엇인가에 대해 동학년 선생님들과 여러 번의 브레인스토밍 끝에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주제였고, 지구의 날이 오기 전에 이에 맞춰서 알맞은 교육과정을 구성해보기 위해서 노선을 활용해 함께 공동 디자인에 들어갔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상대방이 적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면서 서로 소통해가고, 주1회 협의실에서의 모임을 통해 노선 페이지에 모아진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다듬어 가면서 1달 보름 가량 이어지는 주제중심 교육과정 디자인을 해냈다. 이 과정에서 매번 이루어지는 협의에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그 때 그 때 업데이트 되는 노선의 페이지를 살펴 보면서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기에, 정말 누구하나 무임승차 없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노선에서 공동 교육과정 디자인 모습(1학기)



파트별 교육과정 구성 및 기록(1학기)



노선에서 공동 교육과정 디자인 모습(2학기)



파트별 교육과정 구성 및 기록(2학기)

#### 4. 각자의 색을 살리는 공동 수업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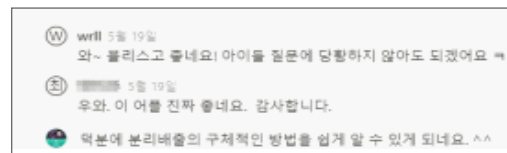
교육과정 디자인뿐 아니라, 올해 중점을 두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서로의 수업을 좀 더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매주 2회 정도의 동학년 협의를 하고 싶었으나, 각종 동아리나 업무 등으로 인해서 주 1회를 모이는 것도 힘들 때도 많았다. 그래서, 동학년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시로 자신의 수업 계획이나 수업 결과물과 과정 등을 노선과 구글클래스룸에 공유하기로 했다.

구글클래스룸에 자료를 올렸을 때에는 거기에 첨부된 온라인 문서 과제나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학급에 가져다 쓰기가 편했고, 노선을 통해서 수업 계획이나 기록을 남겼을 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거나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면을 수정하면 좋을지를 알려줌으로써 다른 학급에서 좀 더 다듬어진 수업이 운영되는데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했던 기후위기를 소재로 했던 주제중심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위 수업을 어떻게 할지는 교사와 학생 구성원이 다르기에 결국 각 학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학습 주제는 같이 가져가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지는 자율적으로 열려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각자의 수업 활동에 대한 기록이 서로의 수업을 키워가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

어떤 학급은 기후위기를 알아보면서 전자저작물 형태의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살펴보는가 하면, 어떤 학급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1학년 동생들에게 기후위기를 설명해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서로 기록해놓고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수업에서 매번 자신이 해오던 것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적용할 수 있었다.

온책읽기 수업에서도 동학년에 그림책이나 독서교육에 전문성을 가지신 선생님이 계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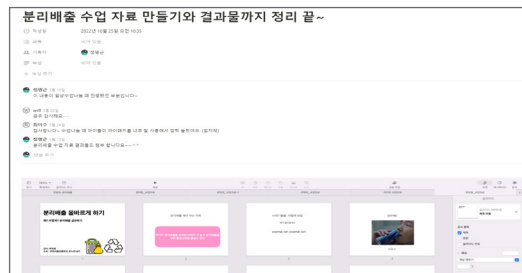


노선 수업기록 피드백 모습

그 선생님이 선도적으로 자신의 학급에서 해오던 내용들을 노선에 잘 갈무리하여 정리해주고 안내해줌으로써 다른 학급에서 좀 더 풍성한 수업활동이 디자인 되는데에 도움을 받게되고, 같은 활동을 가지고도 학급별로 어떠한 과정이나 결과가 있었는지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동학년 교사들의 수업계획 및 과정 기록



각 수업에 대한 피드백과 나눔



수업 활동 계획 공유 및 피드백



구글클래스룸에서의 수업 소통

## 5. 일상수업나눔

수업의 준비나 수업 후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눠가면서 또 하나의 시도를 했던 것은 일상수업나눔이었다. 학교의 장학과는 별개로 자신의 꾸며지지 않은 평범한 수업을 공개하고, 누구나 참관하여 살펴보고 나눔으로써 수업 공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대해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교내 문화를 만들고 싶어하였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지난 몇 해 동안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는 중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우리 동학년에서도 10차시 정도의 일상수업나눔이 이루어졌고, 참관하신 못하더라도, 동학년 협의의 시간 등을 통해 서로의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2017년도에서 몇 년이 흐르면서 우리 학교 내에서도 일상수업나눔을 실시했던 선생님들이 1명에서 4명까지 늘어났으니 그래도 천천히 나름의 수업나눔 문화가 만들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수업 내부결재  
(정유)  
제목 6-1 일상수업 나눔 1차(총 4차시) 계획

1. 6-1 일상수업 나눔 1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기 : 22년 5월 17일 3~6교시  
나. 학습 주제 및 활동

시간 및 과목	학습 주제 및 활동
3~4교시 10:40 ~ 12:00 / 주재학습	- 나도 분리배출 전문가 수업 자료 만들기 - 스타트기가 및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리배출 안내 자료 만들기
5~6교시 13:10 ~ 14:35 / 주활동	- 가꾸로교실 속 수학 배움 활동

일상수업나눔 수시 실시

2022년 5월 17일(3~6교시), 수업협회는 15:00 6~1에서 희망 선생님 참가

## 일상수업나눔 개요

### 3~4교시 주재학습(Save the earth)

- 쓰레기와 기후위기를 연결시켜서 분리배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가정에 보호자분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학급에서 안내 자료를 제작해보는 수업 활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올해 6-1은 ECC(Everyone Can Create)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료 제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상수업나눔 안내자료

## 6. 올해가 끝이 아닐 기록과 공유의 힘

2021.. 6학년

TO DO LIST

- 6학년 1차시
- 6학년 2차시
- 6학년 3차시
- 6학년 4차시
- 6학년 5차시
- 6학년 6차시
- 6학년 7차시
- 6학년 8차시
- 6학년 9차시
- 6학년 10차시
- 6학년 11차시
- 6학년 12차시
- 6학년 13차시
- 6학년 14차시
- 6학년 15차시
- 6학년 16차시
- 6학년 17차시
- 6학년 18차시
- 6학년 19차시
- 6학년 20차시
- 6학년 21차시
- 6학년 22차시
- 6학년 23차시
- 6학년 24차시
- 6학년 25차시
- 6학년 26차시
- 6학년 27차시
- 6학년 28차시
- 6학년 29차시
- 6학년 30차시
- 6학년 31차시
- 6학년 32차시
- 6학년 33차시
- 6학년 34차시
- 6학년 35차시
- 6학년 36차시
- 6학년 37차시
- 6학년 38차시
- 6학년 39차시
- 6학년 40차시
- 6학년 41차시
- 6학년 42차시
- 6학년 43차시
- 6학년 44차시
- 6학년 45차시
- 6학년 46차시
- 6학년 47차시
- 6학년 48차시
- 6학년 49차시
- 6학년 50차시
- 6학년 51차시
- 6학년 52차시
- 6학년 53차시
- 6학년 54차시
- 6학년 55차시
- 6학년 56차시
- 6학년 57차시
- 6학년 58차시
- 6학년 59차시
- 6학년 60차시
- 6학년 61차시
- 6학년 62차시
- 6학년 63차시
- 6학년 64차시
- 6학년 65차시
- 6학년 66차시
- 6학년 67차시
- 6학년 68차시
- 6학년 69차시
- 6학년 70차시
- 6학년 71차시
- 6학년 72차시
- 6학년 73차시
- 6학년 74차시
- 6학년 75차시
- 6학년 76차시
- 6학년 77차시
- 6학년 78차시
- 6학년 79차시
- 6학년 80차시
- 6학년 81차시
- 6학년 82차시
- 6학년 83차시
- 6학년 84차시
- 6학년 85차시
- 6학년 86차시
- 6학년 87차시
- 6학년 88차시
- 6학년 89차시
- 6학년 90차시
- 6학년 91차시
- 6학년 92차시
- 6학년 93차시
- 6학년 94차시
- 6학년 95차시
- 6학년 96차시
- 6학년 97차시
- 6학년 98차시
- 6학년 99차시
- 6학년 100차시


22학년도 서홍6학년 온라인 협의실

TO DO LIST

- 22학년도 1차시
- 22학년도 2차시
- 22학년도 3차시
- 22학년도 4차시
- 22학년도 5차시
- 22학년도 6차시
- 22학년도 7차시
- 22학년도 8차시
- 22학년도 9차시
- 22학년도 10차시
- 22학년도 11차시
- 22학년도 12차시
- 22학년도 13차시
- 22학년도 14차시
- 22학년도 15차시
- 22학년도 16차시
- 22학년도 17차시
- 22학년도 18차시
- 22학년도 19차시
- 22학년도 20차시
- 22학년도 21차시
- 22학년도 22차시
- 22학년도 23차시
- 22학년도 24차시
- 22학년도 25차시
- 22학년도 26차시
- 22학년도 27차시
- 22학년도 28차시
- 22학년도 29차시
- 22학년도 30차시
- 22학년도 31차시
- 22학년도 32차시
- 22학년도 33차시
- 22학년도 34차시
- 22학년도 35차시
- 22학년도 36차시
- 22학년도 37차시
- 22학년도 38차시
- 22학년도 39차시
- 22학년도 40차시
- 22학년도 41차시
- 22학년도 42차시
- 22학년도 43차시
- 22학년도 44차시
- 22학년도 45차시
- 22학년도 46차시
- 22학년도 47차시
- 22학년도 48차시
- 22학년도 49차시
- 22학년도 50차시
- 22학년도 51차시
- 22학년도 52차시
- 22학년도 53차시
- 22학년도 54차시
- 22학년도 55차시
- 22학년도 56차시
- 22학년도 57차시
- 22학년도 58차시
- 22학년도 59차시
- 22학년도 60차시
- 22학년도 61차시
- 22학년도 62차시
- 22학년도 63차시
- 22학년도 64차시
- 22학년도 65차시
- 22학년도 66차시
- 22학년도 67차시
- 22학년도 68차시
- 22학년도 69차시
- 22학년도 70차시
- 22학년도 71차시
- 22학년도 72차시
- 22학년도 73차시
- 22학년도 74차시
- 22학년도 75차시
- 22학년도 76차시
- 22학년도 77차시
- 22학년도 78차시
- 22학년도 79차시
- 22학년도 80차시
- 22학년도 81차시
- 22학년도 82차시
- 22학년도 83차시
- 22학년도 84차시
- 22학년도 85차시
- 22학년도 86차시
- 22학년도 87차시
- 22학년도 88차시
- 22학년도 89차시
- 22학년도 90차시
- 22학년도 91차시
- 22학년도 92차시
- 22학년도 93차시
- 22학년도 94차시
- 22학년도 95차시
- 22학년도 96차시
- 22학년도 97차시
- 22학년도 98차시
- 22학년도 99차시
- 22학년도 100차시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선의 온라인 동학년 협의실

지금까지 우리 동학년이 기록과 나눔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고 도와가는 이야기를 적어왔다. 사실,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는 21년도의 기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그 때부터 시작된 노선이나 구글클래스룸을 활용한 동학년 운영의 기록이 22년도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참고가 됐으며, 그 때의 아쉬움과 부족한 부분을 떠올리며 올해를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새겨지고 있는 올해의 기록이 우리 혹은 또 다른 내년의 우리 학교 6학년 선생님들의 교육과정과 수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져본다. 이 기록과 나눔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을테니. 

# 아이들과 함께 꿈지락꿈지락

인천대화초등학교 교사 백사무엘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며 배움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간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러한 성장은 오직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학생은 배움을 통해,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는 순간들을 꿈지락이라고 정의해 봤다. 동료장학을 위한 공동지도안을 동학년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며 느꼈던 꿈지락의 순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 1. 꿈 (공동의 목표를 향해)

동료장학을 앞두고 전문적학습공동체 모임을 가졌다. 나를 비롯한 동료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좀 더 나은 교육과 학교의 미래를 꿈꾸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 모두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답답한 부분도 많았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4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양한 수준차가 존재하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수업하는 것은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하기에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한다면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수업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 동학년 교사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이번 동료장학을 준비해나갔다.

## 2. 지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수업의 주제이다. 긴 논의 끝에 국어 토의 단원이 공동수업안의 주제로 정해졌다. 이 단원의 목적은 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교과서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어 학생들이 지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마지막 차시에 아이들이 흥미로워할만한 토의 주제를 만들어 보자며 수업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지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을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고 때마침 5학년 과학에서 태양계 행성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기에 ‘재난을 피해 화성으로 간다면 인류 보존을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로 생각이 발전되어 갔다.

주제를 정했지만 우리를 다시 고민에 빠지게 한 것은 ‘교사가 어디까지 활동에 개입하여 학생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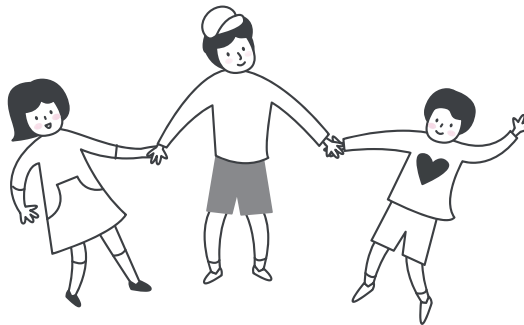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였다. 주제만 던져주고 토의를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이 식량과 필수품들에 국한되어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란 걱정이 되었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둠별로 무엇을 선정해야 할지 틀을 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게 나온 모둠별 주제는 아래와 같다.

### <모둠별 주제>

1. 인류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될 두 개의 직업 선정
2. 인간과 함께 실을 동물 2종류 선정
3. 인간과 함께 실을 식물 2종류 선정
4. 식량을 제외한 필수품 2가지 선정
5. 인류를 유지시키는데 가장 도움이 될 나이 구성 선정

주제를 좀 더 구체화시킬 모둠별 학습지는 토의 단원을 진행해보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한 뒤 구성하기로 하였다.

토의 단원의 앞 차시를 진행하고 다시 모여 수업 피드백을 서로 나누었다. 토의 수업 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재미를 느끼는 학생도 있었지만 의견 발표 시 우물쭈물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학생 모두가 토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한 결과, 학습지에 구체적인 예시들을 넣어 자신의 생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데 생각이 이르렀다.





## <인간과 함께 실을 식물 선정 모둠 예시>

주장(point) : 저는 ( 감자 )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reason) : 왜냐하면 감자는 키우기 쉽고 탄수화물 및 영양소가 풍부한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뒷받침 자료(example) : 화성 관련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해서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감자는 새로운 땅에서도 잘 적응하는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주장(point) : 따라서 저는 ( 감자 )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안이 완성되고 이제 진짜 토의수업만 남았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준비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준비되지 않은 자료들이 생각났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출력 버튼을 누르고 시간을 끌었다. (꼭 이런 때는 출력이 바로 안되곤 한다.) 식은땀이 났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찌어찌 수업을 끌고가서 토의를 진행하고 발표까지 했지만 시간 배분을 잘못하여 자기 반성 및 정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채 수업을 마치게 되었다.

수업을 마친 후 교실에 모인 동학년 선생님들과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둠별로 사용할 학습지를 주고 기록자가 기록하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개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화성에 대한 조건을 잘 몰라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배경지식을 과학단원과 연계하여 제공한 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모둠 활동 진행이 힘든 반은 개인별 활동으로 바꾸어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동지도안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지만 학급마다 수준과 상황이 달랐다. 동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반 수업을 보고 난 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방향성을 각자 정하신 것 같았다. 그 방향성에 맞춰 다음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동지도안, 이것의 가치는 매 수업 후 이뤄지는 수업에 대한 협의 과정이 더해지며 빛을 발해갔다.

### 3. 자연스러움을 추구한 부자연스러운 수업 (5학년 2반 교사 신유경)

처음 동학년 선생님들이 모여 공동지도안을 계획할 때 가장 학생들의 배움이 잘 드러나는 수업을 해 보자는 취지로 토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경력이 더 짧았을 때, 겁도 없이 토의 수업에 도전했다가 대차게 망한 기억이 있어 또 다시 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잘 준비해서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겼고,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 조금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1반의 수업 공개가 끝나고, 동학년 선생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모든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토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생각하고, 의견의 장·단점과 그 예시까지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예시까지 제시하는 PREP 방법을 삭제하고 의견·근거·장단점만 토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동기유발과 수업 안내 등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토의에 집중했습니다. 또, 주어진 토의 수업 차시 외에도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토의를 2~3회 더 진행하여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수업 때 역시나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토의 내용 정리를 빠르게 하도록 재촉하였습니다. 또한 모둠별 토의 결과 발표와 자기 평가 활동을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어 토의에 대한 반성과 배움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토의를 진행하고 자기 평가까지 끝나는 수업을 의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짊어놓은 부자연스러운 수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토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주제를 미리 제시하고, 의견과 근거를 마련한 채로 토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4. 다 같이 만들어낼 때의 성취감 (5학년 3반 교사 김진우)

우리의 교실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학생들은 토의활동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토의능력은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해내는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에 토의를 주제로 국어 공개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개수업에서 저는 2가지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5-3반 학습자의 능력과 구성 상태를 깊이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5-3반에는 신체, 정서적 이유로 도담반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최대한 쉽게 의사표시를 하여 토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호등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모둠활동시 생기는 불필요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활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모두가 힘을 합쳐 가장 좋은 의견을 만들어냈을 때의 성취감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서 내용으로 토의활동을 했을 때 학생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상대방과 의견교류를 위해 더 나은 답을 찾기 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수업자는 교육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토의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양한 의견교류를 통해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최선의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경험하여 민주시민의 자세를 배울 수 있고, 나와 주변사람이

협력했을 때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에 협력이 필요함을 학생들이 깨닫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수업을 통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도 토의합니다.

## 5. 진지하고 발랄한 재치만점 우리 반 (5학년 4반 교사 김정주)

우리 5학년 4반은 평소 아이들이 바르고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편이며 학습 급훈도 ‘깨끗한 반을 만들’라는 내용이 포함될 정도로 아이들이 조금 진지하고 고지식한 편입니다. 우리 반은 제가 관찰한 결과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규율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성향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규율이나 규칙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한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융통성있게 판단하는 것이 부족하여 교사의 도움이나 판단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업 주제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토의이기 때문에 서로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수업에서 앞선 여러 수업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제 수업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첫째, 화성에 대한 사전과제 제시입니다. 토의 주제가 화성과 관련된 문제상황이기 때문에 화성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학 시간에 배운 화성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이며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사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의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견 마련하기 단계에서 자료 조사를 추가하였습니다. 토의의 핵심적인 단계 중의 하나가 바로 의견 마련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자료 조사에 필요한 스마트 패드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의견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토의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기를 수 있어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0분이라는 시간이 수업 설계 과정에 비하여 부족하여 2차시로 구성되었다면 학습 문제를 도달하는 데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 6. 락 (살아 숨쉬며 변화하는 수업)

동료장학의 모든 순간에 즐거움이 있었다. 동료교사와 함께 공동수업안 구성을 시작하며 의견을 나누었던 시간들, 공동의 수업안으로 설레며 처음으로 토의 수업을 시작했던 순간, 그리고 토의 수업 중 아이들의 집중하는 눈빛과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표정 등을 떠올렸을 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이번 동료장학의 가장 큰 즐거움은 살아 숨쉬며 변화하는 수업을 보는 것이었다. 한 반의 수업을 보고 다음 반 수업을 위해 적용할 점, 보완할 점을 찾아 좀 더 나은 수업을 만들고자 했던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첫 수업이었던 1반에서 모둠별 학습지에 기록자 역할을 한 명만 부여하여 기록하는데 긴 시간을 쏟아 결국 수업 시간 부족으로 자기평가를 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반에서는 기록자 역할을 없애고 개인 모두가 자기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하여 시간 단축을 도모하고 계획한 모든 활동을 끝내는 성과가 있었다. 3반에서는 앞서 진행한 1반과 2반의 수업을 본 결과 모둠별 토의수업활동과 학습지 기록이 3반 학생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전체적인 수업활동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었다. 집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토의 주제의 난이도를 낮추었고 모둠별 토의활동을 개인별 토의놀이 활동으로 바꾸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었다. 또한 신박한 동기유발로 학생들의 흥미도를 높여 학생들이 끝까지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4반은 앞서 진행한 1,2반의 토의활동 중 배경지식의 부재로 학생들의 비논리적 의견 제시가 많음을 보고 원활한 토의 의견 제시를 위해 화성의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는 부분을 선행하여 토의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주제를 두고 수업을 했지만 수업의 진행과 결과물은 모두 달랐다. 마치 같은 음식 재료로 서로의 개성이 드러나는 아주 다른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들이 모인 것 같았다. 이렇게 우리의 수업은 살아 숨쉬며 변화하고 있었다. 각 반의 변화하는 수업은 보는 내내 '같은 주제의 수업이 어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놀라움과 동시에 짜릿한 희열이었다.

수업의 작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배움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꿈꾸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꿈지락댄다. 

# 천명의 아이들을 품은 선생님들과 함께 성장하다!

“열매의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의 열매는 셀 수 없다.”

인천백석초등학교 교사 김동민

이 문구를 보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하다. 한 명의 행복한 선생님은 씨앗과 같아서 40년의 교직생활 동안 교실이라는 땅에 심겨지면 셀 수 없이 많은 열매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30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듯 천명의 아이들을 품은 한 명의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선생님들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

## 1. 수업 나눔의 토양, 기회를 주신 <선배님들>

지금도 그렇지만 수업을 나누는 것은 늘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조금은 자연스럽게 수업을 나눌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배움에 진심을 가진 선배님들의 열심과 나눔의 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참이나 어리고 경력도 적은 신규 시절의 나에게 수업 나눔의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수업을 나누는 것은 늘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조금은 자연스럽게 수업을 나눌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배움에 진심을 가진 선배님들의 열심과 나눔의 본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참이나 어리고 경력도 적은 신규 시절의 나에게 수업 나눔의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교과연구회 시절 선배님의 수업나눔

선배 선생님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업 나눔 그 자체로 보람을 느끼시며 당시 ‘교과연구회’를 통해 선생님들을 모으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며 자신의 것을 먼저 공유해주셨다. 후배라고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후배들에게도 수업 나눔의 기회를 주셨다.

내 교직 인생의 토양이 되었던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어느덧 중견 교사가 되어 후배님들이 적잖게 보이니 그때 그 시절의 선배님들이 더욱 그리워지고 고마운 마음 또한 더욱 커짐을 느낀다.

## 2. 수업 나눔의 씨앗, 함께 한 <선생님들>

신규 시절부터 학년부장의 존재는 크게만 느껴졌는데 교직 10년 차 정도가 되는 2015년에 처음으로 6학년 부장을 맡게 되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학년을 꾸리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그러던 중에 새 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중 <중견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들으면서 알게 된 선생님들과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2015~2017 자발적 전문적학습공동체 '배우리' 공부모임〉

모여서 학급운영, 교수학습, 교육과정 등을 주제로 공부하고 서로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공부 모임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다. 마침 중견교사 연수 때 강의를 해주었던 정유진 선생님의 추천으로 공부 모임을 꾸준히 운영하셨던 몇 분의 선생님이 함께 하면서 교사 공부 모임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교사 공부모임을 운영하면서 함께 한 선생님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 보는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장의 기쁨은 함께 하는 여정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 3. 수업 나눔의 즐기, 배움에 열정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2015년부터 3년 연속 교사 공부모임(배우리, 나누리, 새우리)을 운영하면서 6학년 부장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고 알차게 꾸려 갈 수 있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첫만남 프로젝트, 마을경제활동, 국가무역활동, 공동체놀이활동'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6학년 학생들도 흥미와 자발성을 가지고 초등학교 마지막 1년 동안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 갔다.

그렇게 즐겁게 공부 모임을 운영하다 선생님들도 바쁘시고, 학교 업무도 많아져 2년 정도 공부 모임을 쉬다가 2020년 새롭게 학교를 옮기고 공부모임을 원하시는 선생님들도 모이게 되어 '행복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2022년 현재까지 3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2020~2022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행복교실’ 공부모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 매달 행사를 진행하고, 행정적으로 공문을 작성하고 안내도 해야 하며,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필수사업도 해야 하고 정산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다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 번아웃 상태가 되면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내가 올 해 이것 또 왜 했을까?’라며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그럼에도 매년 ‘행복교실’이라는 이름의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학급운영, 체계적 교수학습법, 프로젝트수업, 교실놀이, 연구도서 나눔 등의 주제로 함께 하실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공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함께 성장하여 행복해진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아이들이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부 모임에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모임 전보다 밝아지고 성장해 가시는 모습을 나눠 주시고 교실 속 작은 변화들을 이야기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하다. 그래서 매년 힘이 들지만, 이제 공부 모임을 그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매년 공부 모임을 이어 가게 된다.

#### 4. 수업 나눔의 꽃, <교육실습협력학교>

교직 5년차가 되면 교대에서 배운 것들을 다 써먹은 느낌이 들고 에너지도 소진되어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갈증이 생긴다. 그 즈음에 <초등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들으며 다시금 에너지를 회복하고 선배 교사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는다.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러 교직 10년 차가 될 즈음에 학교 업무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학급운영도 곧잘 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이다.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2018년 교직경력 15년 차가 될 무렵 연구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마음이 맞는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하여 선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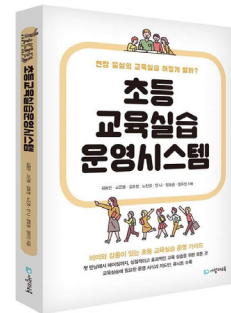
교육대학교 후배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모든 내공과 노하우를 후배이자 제자이며 미래의 동료가 될 교생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줄 기회가 열렸다.

우리 순수한 선배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알려주려 하자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상황을 잘 극복하여 서로 웃으며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교육실습협력학교〉를 함께 하는 선생님들과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HERO〉를 꾸려서 ‘교육실습’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다. 교대 2학년 교생들의 만족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대 4학년 수업실무실습을 운영하였고, 4학년 교생들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3학년 교생들의 수업실습을 알차게 꾸려 나갔다. 교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지만 교생들과의 시간을 거듭할 수록 교사 제자를 양성한다는 뿌듯함과 애뜻함을 느끼며 행복해 하셨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기쁨 또한 매우 컸다.

그렇게 2년간의 〈교육실습협력학교〉 실습부장의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기회가 되어 전국의 교육실습 경험을 가진 7명의 선생님과 뜻을 모아 〈초등교육운영시스템〉이라는 책도 집필하게 되었다. 공부하고 기록하고 실천하고 나누다 보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까지 쓰게 되었다.

2018~2019, 2021년 3년 동안 〈교육실습협력학교〉 실습부장을 하며 동료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교생을 돕는 경험은 나의 시야와 역할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할 때 나,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내 생애 첫 책〉

2018~2019, 2021년 3년 동안 〈교육실습협력학교〉 실습부장을 하며 동료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교생을 돕는 경험은 나의 시야와 역할을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할 때 나,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 5. 수업 나눔의 열매, 행복해 하는 <학생들>

20년 가까운 교직 경력 가운데 네 번째 학교까지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많은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만났다. 특히 여러 선후배,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공부모임을 이끌어 가면서 가장 많은 변화를 받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인이었다.

단 1년만 허락된 관계, 우리들은 그렇게 딱 1년만 허락된 만남을 갖는다. 그 1년 동안 나를 만난



학생들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 첫 만남에 첫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 한글도 배우고, 숫자도 배우고, 놀이도 함께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며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까.



〈1학년 입학 100일 축하 파티(202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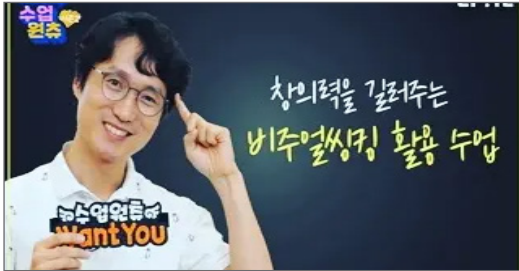
내가 하는 매일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만큼 실력이 자라고, 행복한 마음을 가득 품고 성장하면 좋겠다. 초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알려주면 지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 <마인드 맵>, <비주얼씽킹>, <개념심화 단어공부>를 알려주었다.

공부 모임에서 <성격 심리>, <교실놀이>를 주제로 실습하면서 ‘학생 심리’, ‘관계’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 학년 전체 아이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매주 <공동체 놀이>를 하거나 교실 속에서 친구와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벼운 인성 놀이도 꾸준히 지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밀감, 배려심, 협동심을 몸으로 마음으로 익히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해마다 만나는 학생들이 성장해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담임 교사가 매년 맺어가는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 6. 수업 나눔의 향기, 어느덧 성공한 <나>

어느 강연인가 명사님께서 ‘성공’이란 ‘성장하여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성공의 정의가 성장하여 공유하는 것이라면 선생님들의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날마다 공부하여 학생들 앞에서 가르침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다보면 가장 많이 성장한 사람은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자신이다. 그렇게 선생님들은 성장하니 나눌 것이 많아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나 또한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와 격려 덕분에 수업 나눔을 하게 되었고, 공부 모임을 통해 연구하고 기록하고 실천하고 나누면서 성장을 하니 나눌 것이 생기고, 아는 것을 나누다 보니 성장하는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 2022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업원추> 12편 - 창의력을 길러주는 비주얼씽킹 활용 수업 〉

올 2022년 한 해만 해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수업나눔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수업 나눔을 하고 있고, <수업원추-비주얼씽킹 활용 수업> 영상을 촬영을 통해 수업 나눔을 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육블로그(종이 위에 꿈을 그리다)를 보고 연락이 온 EBS 작가 덕분에 <EBS 국토채널> 촬영으로 성공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물론 수업 나눔의 삶은 고되기도 하고 언제나 부담스럽다.



〈 EBS 국토 채널 - 국토개발게임을 시작합니다 영상 촬영 중(2022.9.17.) 〉

그럼에도 수업 나눔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1,000명의 아이들을 품은 선생님에게 전해지는 행복감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누군가에 향기로 남고 싶다. 

## 초보부장 비망록

인천하늘초등학교 교사 김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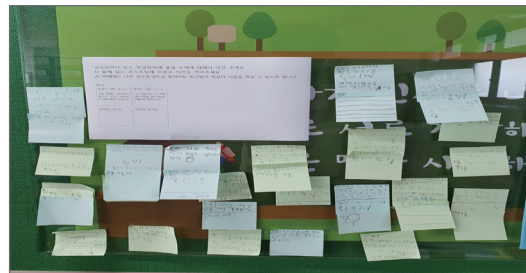
### 1. (1학기)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였다?

2022년 학교에서 처음으로 학년부장을 맡으면서 가졌던 생각은 단순하였다. ‘내가 열심히 한다면 다 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은 학년교육과정을 준비 하면서 바로 바뀌었다. ‘하던 대로 하자’. 모든 것이 낯설었고 학급과 수업 수준에서 고민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학년을 고려하며 긴 호흡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려니 초보 부장에게는 다소 버거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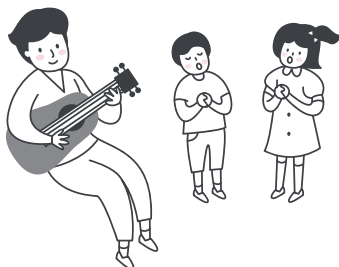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작더라도 1학기 프로젝트 수업을 직접 구상하고 진행하였다. 학급 자치를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였다. 특히 저학년 담임을 하면서 많이 겪은 문제가 학생들이 다른 친구와의 갈등과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목소리를 내며 상대를 이겨 취하려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주 학생들에게 1인1역 및 학급에서의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시간을 운영하여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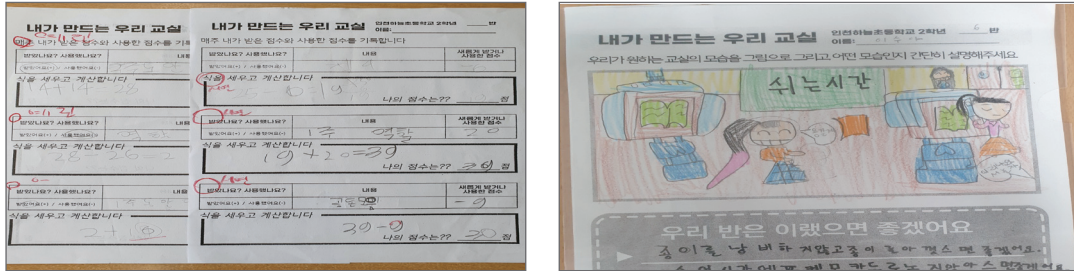
차시	관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 내용	과정중심평가 계획 평가 시기, 방법 및 평가 내용	학생 주요성취 및 평가내용
1	초과	다양한 자기 사용하는 방법 익히기 다양한 자기 존중하는 방법 익히기	[1차시] 다양한 자기의 기 분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익힌다.	관찰법
2	초과	계절 관화하기, 인화넷(포스트) 사용 방법 익히기		
3-4	통과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인화넷을 활용 하여 조사하기	[2차시-3차시]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프로젝트수업(제시문)
5-6	국어	내가 알고 싶은 나라에 대하여 알은 게시물(제시문)을 작성하고 친구와 공유하기	[4차시-5차시] 인화넷을 활용하 여 다양한 정보를 찾는다.	
7-10	통과	인화넷에서의 지도 기능이 나 지도업 종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의 모습 관찰 하고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6차시-7차시]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걸로 그려 내본다.	관찰법
		- 우리 동네 지도를 그리거나 만들어보기	[8차시-9차시] 동네 지도에 대해 발표한다.	관찰법 프로젝트수업 (제시문, 발표문)

〈프로젝트 계획〉



〈규칙 건의 게시판〉





〈활동지: 1인1책 점수 계산 / 내가 원하는 교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상당히 준비가 미흡한 운영이었다. 동학년과 협의를 통해 소통하며 준비하기보다는 내 요구에 동학년이 맞춰 움직였으며, 심지어 내가 무엇을 수업할 것인지도 다소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자료나 자리도 없었다.

결국 프로젝트 수업은 1인1책을 정하고 점수만 계산하는 시간으로 변질되었다. 학급에서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한 배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며,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잘 몰랐다. 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가 조율하며 해결하는 과정을 기대했던 애초의 목표를 생각하면 상당히 어긋났다.

그래도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학생-학부모들의 좋은 반응과 각 학급 담임선생님들의 협조로 큰 문제는 없이 마무리하였다. 그 후에 스스로 1학기를 반성하면서 프로젝트가 다소 미흡한 원인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하였다.

가장 먼저 교과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프로젝트 구성이었다. 물론 교과 교육과정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며 금과옥조처럼 여길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서 아예 벗어나서 새로운 내용으로 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초보부장 한 사람이 덩벼들어 만들 것이 아니었다. 꼭 동학년 선생님들과 같이 교육목표-학생의 변화상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업내용까지 단계적으로 구상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 없었기 때문에 뜬구름 같은 프로젝트가 된 것이었다.

다음으로 거시적인 목표 '만' 바라본 것이 문제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들의 변화에는 나름의 답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떻게 이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업 목표들이 없었다. 교과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하였다면 최소한 기존의 교육과정을 참고 삼아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겠지만, 아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비밀 수 있는 언덕이 없었다.

듀이는 「경험과 교육」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할 때의 직면 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학생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경험에 들어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학생 들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한다. 또한 이렇게 파악한 것을 준거로 삼아 학생들의 현재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선별하고 적절히 조직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학급 자치 프로젝트 수업에 반영한다면 학생들이 교실 상황에서 직면하는 상황과 갈등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학생들이 문제로 인식할 것을 적절히 선정하며 수업을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너무나도 먼 목적지만 정하였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거치는 경유지들은 하나도 생각 못 하였다.

구체적인 실천과 과정이 없는 프로젝트는 자유로운 설계가 아닌 느슨한 설계가 되는 것이 당연하였다. 아무런 제한 없는 것이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정해진 울타리가 없어 이 산, 저 산 아무렇게나 옮겨타는 양 떼는 목동에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상태로 여겨질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 사실을 그때의 나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 2. (2학기) 작은 것부터 다시

2학기 교육과정을 다시 계획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다시 생각하였다. 1학기에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교실 상황 속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만 떠올 렸다면 2학기에는 먼저 교육과정과 지도서를 살펴보았다. 좋으나 싫으나 교과 교육과정과 함께 가는 학사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노트북과 함께 동학년에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전학공을 운영하는 사실이 생각났다. 평소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경험 없이 바로 중학년 또는 고학년에서 바로 기기 활용으로 넘어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생각 났다. 또한 1학기에 학급에서 일기예보 뉴스 제작했을 때 제공해준 대본 틀까지 거절하고 직접 대사 하나하나를 작성하며 열심히 참여하던 학생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결과 함께 전학공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학기 수업\_통합 교과 '봄' 일기예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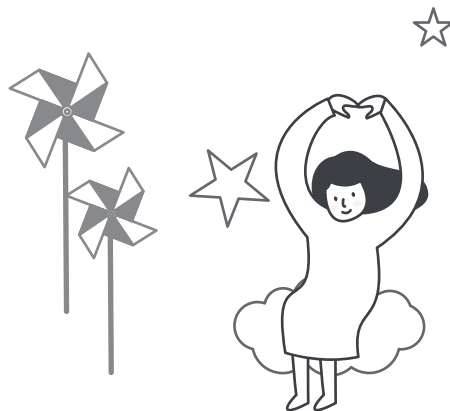


그래서 여름방학 시작 전 학년 협의를 가지고 2학기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다행히도 학년 선생님들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아래의 표는 2학기가 시작할 때쯤에 완성한 프로젝트 계획이었다. 1학기과 비교하면 그때와 다르게 무엇을 수업할지 확연히 드러난다.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을 일부 반영하며 그때마다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지 찾고 교육청 에서 제작한 자료를 참고하며 성취기준을 구상하였다.

2학년이었기 때문에 국어, 수학, 통합교과로 교과가 한정적이었다. 그래도 주로 국어와 통합교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겨울 교과의 ‘두근두근 세계 여행’ 단원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는 다소 적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내용의 수업들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가을 교과의 ‘동네 한 바퀴’ 역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을 활용한다면 더 풍부한 내용의 수업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저학년 학생들도 미디어 노출 시작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잦다.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미디어를 직접 생산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미디어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히 찍고 편집하는 것을 기능적인 수준을 넘어 대본, 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의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므로 여러 교과를 융합하여 재구성하는 수업에 적합하다.



차시	관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활동 내용	과정중심평가 계획	
			관련 성취기준 및 평가내용	평가 방법 및 시기
1	초체	-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방법 익히기 - 디지털 기기 관리하는 방법 익히기	[2다-01] 디지털 기기의 기 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익힌다.	관찰법
2	초체	- 계정 관리하기, 인터넷(크롬) 사용 방법 익히기		
3~4	통영(2)	-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인터넷을 활용 하여 조사하기	[2술07-03] 내가 알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포트폴리오(게시물)
5~6	국어(2)	- 내가 알고 싶은 나라에 대하여 짧은 게시물(패들렛)을 작성하고 친구와 공유하기	[2다-02] 인터넷을 활용하 여 다양한 정보를 찾는다.	
7-10	초체(1) 통영(3)	- 인터넷에서의 지도 기능이나 지도앱 등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의 모습 관찰 하고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2술06-03] 동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 설명한다.	관찰법 포트폴리오 (제작지도 활동지)
11-16	통영(5) 초체(1)	- 우리 동네 지도를 그리거나 만들기를 통해 제작하기 - 친구들과 함께 제작한 지도를 감상하기	[2술06-03] 동네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2다-02] 인터넷을 활용하 여 다양한 정보를 찾는다.	
17-18	초체(2)	-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영상과 사진 찍고 컴퓨터에 옮기기 - 사진 및 영상 촬영할 때 주의할 점 및 예절을 익히기	[2술06-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 여 발표한다. [2국03-03]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2다-03] 미디어를 제작하고 간단히 편집한다.	포트폴리오 (제작한 미디어)
19-21	통영(3)	- 학교 주변을 돌며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와 직업 등을 조사하기		
22-26	초체(1) 통영(2) 국어(2)	- 영상 및 사진을 활용하여 우리 동네의 가게와 직업을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	[2다-03] 미디어를 제작하고 간단히 편집한다.	포트폴리오 (제작한 미디어)
27-30	초체(3) 통영(1)	- 우리 동네의 가게와 직업을 뉴스 형식으로 소개하여 발표하기 - 제작한 우리 동네 뉴스를 친구들과 감상 하고 피드백 나누기		

〈프로젝트 계획〉

또한 1학기과 달리 준비된 계획안을 미리 공유하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협의 및 전학공 운영을 진행하였다. 선생님들의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된 기능 연수 외에도 원활한 노트북 사용과 관리 등의 협의도 진행하였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아무리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였어도 경력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역량이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다. 기능과 기기를 다루는 기술에 능숙하다보니 자꾸 관점이 간혀 저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동학년에서 상호보완적인 도움으로 잘 해결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학년에게 계정관리를 직접 익히도록 준비했을 때 매번 로그인-아웃 없이 학급번호로 노트북과 계정을 연동하여 제공하는 것과 노선을 통해 노트북 사용일자를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는 학년의 가장 경력 많으신 선생님께서 제공하였다.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기능적인 연수와 안내가 부족하여 몇 번은 수업 중에 다른 학급을 도와주러 활동을 맡기고 뛰어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고, 수업보다 게임이나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도 처음에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던 학생들이 내용은 다소 유치하지만 중학년 학생 못지 않게 디지털 기기들을 조금씩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다. 그리고 학급 단위 개별 수업에서 더 나아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까지도 직접 다루 면서 나 자신도 한층 더 배운 것 같았다.



〈프로젝트 계획〉

② **집계중** 9월 30일 (일요일)  
신청할 때 (학년)-(반)-(일자) 작성해주세요.  
이미 일자가 지난 내역이 있는 경우 삭제하고 작성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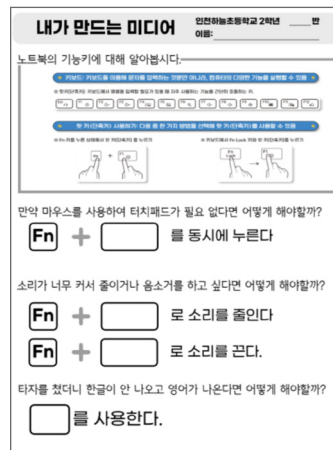
댓글 추가

<학년 노트북 사용>

	일	화	수	목	금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2-4(10/24)		
5교시					

〈노트북 사용 시간표〉

최근에 결국 2달간 걸친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교과 성취기준과 학생들이 함양했으면 하는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까지 모두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배움과 경험은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즐거움과 학습 참여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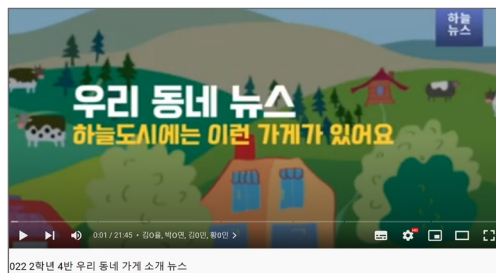
활동지: 노트북 기능키 / 지도앱 활용



거울: 두근두근 세계 여행 관련 수업



〈'우리 동네 가게 소개 뉴스' 만들기〉



〈'우리 동네 가게 소개 뉴스' 활동 결과물〉


### 3. 마치며...

2022학년도 1학과 2학과를 걸치며 2번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으며, 여기에서의 자세한 과정들을 글이나 말로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내가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얻은 것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혼자 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 하며 무엇을 가르칠지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고되고 의견 교환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자칫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흐를 수도 있으며, 교과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도 같이 운영하면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준비 자체도 버거운 작업이다.

둘째로, 완벽함과 정답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재구성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고민 없이 주어진 텍스트(교과서 또는 학습자료)를 그냥 전달하는 것 역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답이 있다면 그저 학생들에게 연속적인 배움과 교육적인 경험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각자 나름의 답을 찾는 성취감과 보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절대로 쉽지는 않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괴롭고 고민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답답하고 지난한 과정으로 느껴지기 쉽다. 이런 가운데에서 소진을 경험한 교사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관계는 동학년일 수도, 전학공일 수도 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들이 보다 정교한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같이 하는 경험은 그 어떤 지원보다도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이를 위해서 관련 내용의 연수와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시도, 넛지(Nudge)와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동학년에게 정말 감사하다. 사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기에 추가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까지의 요구가 과할 법한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22년 한 해동안 학년부장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 학년부장을 처음 시작 하였을 때 '내가 열심히 한다면 다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임하였는데, 지금은 '같이 해야 할 수 있겠지'로 바뀌었다. 교육과정은 한 사람의 힘보다는 학년의 도움으로 함께 해야 운영될 수 있다. 



# 작은 물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웅달샘이 될 수 있다면~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아분교장특수교사 우병호

## 1. 작은 물방울이 삶의 웅달샘이 되어

**모**두가 같은 교사지만 ‘특수’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차이와 다름을 설명하고 바른 인식을 어떻게 뿌리내릴지 고민해야 하는 사람, 바로 특수교사다. 교사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특수교사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새 학년이 시작되면 반가운 마음만큼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나의 교육과 학습법이 아이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 안의 모든 아이를 아우르며 관계를 맺는 방법까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이 깊어진 데에는 10년 전에 만났던 한 학생이 나의 교직의 길을 안내해 준 것이다.

어느 날 2교시였다. 스스로 하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 보라는 과제를 주고 교탁으로 돌아와 가만히 기다려 보았다. 과목 선택도, 질문도 없이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던 학생은 점심을 먹고 6교시를 마칠 때까지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날 이후 그동안 내가 무엇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건지 충격에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특수교육? 특수교사의 가르침? 지도?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는 것을 꺼내어 보도록 조력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업에 임할 때면 그 학생을 생각하며 다짐한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자. 시간을 두고 보채지 말고, 기다려주자.’

## 2.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언제나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함께 언급되는 것이 특수교사의 자기계발이다. 우리는 특수교육, 통합교육, 장애학생의 교육 및 그들의 진로와 사회진출까지 염두해 자기계발을 이어간다. 나아가 장애학생 부모와 애정 어린 공감을 나누고 일반교사 및 특수교육실무사와의 신뢰 관계를 이어나가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교육하고 있다.

나의 교육철학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통합교육의 실천이다. 이를 위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장애이해교육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리고,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적십자 지도교사 활동을 하며

청소년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솔선수범하는 교사로서 100회 이상 헌혈로 헌혈 명예장을 수여 받았다.

통합교육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서로의 교육과정을 배려하고 교육 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내용을 수정하여 학생의 교육적 배치를 결정하는 일이다. 2021년 3월부터 우리 학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통합체육수업 운영 공모 학교로 지정되어 매주 수요일 방과 후 1시간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수업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학생들도 수업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학생들도 흥미로워하는 체육수업을 구성하게 되었다. 학생들 스스로 서로 하고 싶은 경기 종목을 정해보고, 경기 운영 방식 및 규칙도 조정하며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저학년, 고학년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쉽다면 특수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수교사로서 학교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다양한 문제들과 시행착오를 겪어오고 있다. 교사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하는 특수교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기도 한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때에는 반갑고 설레는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특히 초임 시절에는 기질적 특성, 양육환경도 모두 각기 다른 아이를 만나는 일이 두렵기도 했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그들의 미래 진로와 사회진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도 많았다. 더불어 학교 안에 있는 다른 비장애 학생들, 각기 개성이 다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육을 지원할 것인지 고민도 되었다. 고민의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애정이 어린 공감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해야 하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수교사로서의 삶은 특별하지만 전혀 특별하지 않은 구체적인 현실이자 진정한 미래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장애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사회에 나갈 때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가장 가까워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 경계를 넓혀가는 교육의 장이고, 이 일을 특수교육과 특수교사들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단지 수업시간이기에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수업을 통해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터득하게 돕고 학생들에게 최선의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수교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개별화교육이자, 달걀을 지켜가고 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와의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일반교사와 함께 고민하며 교육해야만 한다. 특별한 아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하는 특수교사이지만, 일반교사와 협업과 소통을 통해 통합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특수교사들의 교실과

교육의 문제들은 함께 나눌 계기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다. 장애 학생이 입학하고 사회에 나갈 때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진정한 인성교육과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바르게 인도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수교사 간의 경험 공유와 소통은 뚝 부러지는 해답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원칙과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왕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장애학생을 인식하지 않고 모르는 채 학급에서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4, 5월에는 아이들의 떨어진 거리를 더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통합교육활동을 통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여러 활동을 해 보았다.

통합체육을 통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구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서로의 교육과정을 배려하고 교육 과정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내용을 수정하여 학생의 교육적 배치를 결정해야 한다.

2021년 3월부터 우리 학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통합체육수업 운영 공모 학교로 지정되어 매주 방과 후 1시간씩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수업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전거를 지원받아 교육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학생들도 수업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학생들도 흥미로워하는 체육수업을 구성하게 되어 학생들 스스로 서로 하고 싶은 경기 종목을 결정해보고, 경기 운영 방식 및 규칙도 조정하며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저학년, 고학년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비장애인 학생들을 전담한다고 생각하고, 장애학생들은 특수교사의 업무로 볼 때 조금은 속상할 때도 있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통합체육 교육을 통해 일반교사가 특수교사를 이해하고, 비장애 학생도 장애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비장애학생, 장애학생이 함께 꿈의 텃밭을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꿈의 텃밭 팻말 디자인부터 해먹 설치까지 아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도적으로 했다. 또한, 감자, 상추, 깻잎, 벼 등 채소밭을 아이들이 직접 물을 주고, 가꾸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직접 수확한 채소와 함께 음식도 해 먹으면서 학생들간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아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잡초를 뽑는 것이라고 했다. (웃음)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학생 수가 많아져서 함께 텃밭도 풍성하게 가꾸고 싶다.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실 교사 특히 특수교사! 그 동안의 특수교사로서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부산에서 교직원생활 15년간 하고 있었는데, 성과 위주로 달려오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졌고, 교사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요즘 많이 깨닫고 느낀다.

학교생활은 학생수가 10명 남짓되는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고, 해먹에서 쉼을 가지며 아이들에게 강요가 아닌 선택과 자율을 주는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진정한 미래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을 모든 교사 그리고 예비 선생님들께 교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맞춤형 교육이자, 깨지지 않은 달걀을 지키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것은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취득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다. 교사의 삶 또한 의사와 같지 않을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한 분야를 연구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1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분야의 '아웃라이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도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교사의 역할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과 우리 학생들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업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교사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 교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것들은 배제하고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아이들을 위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교사들, 예비 선생님들께 우리의 삶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며 격려하고 싶다. 끝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하나 된 마음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바라보며 지도하는 마음가짐도 함께 갖고 성장하시길 희망해 본다.

###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쉽다면 특수교육이 아니다!

특수교사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이들과 우리 교육이 어떻게 경계를 확장해야 하는지 늘 고민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사회에 나갈 때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단지 수업시간이기에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수업을 통해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터득하게 돕고 학생들에게 최선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의 삶일 것이다.



특수교사들에게는 출처도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말이 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쉽다면 특수교육이 아니다.  
특수교사의 삶은 원래 어려운 것이고,  
다만 특수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교사의 삶은 어떤 삶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금의 나!  
특수교사의 삶이 자랑스럽다.”

지금도 특수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 중이다. 우리의 역할은 특수교육 현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채워 나가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합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계를 넓혀가는 교육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을 특수교육과 특수교사들이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 자연과 삶을 연결하는 4계절을 품GO 생태수업

-3,4학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만들기-

인천동수초등학교교사 조교금

## 1. 마주보기

**동** 수초 선생님들의 한해준비는 2월부터 시작됩니다.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학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1월에 학년을 정하신뒤 2월에는 새로운 학년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2월달에 학교,학년의 워크샵은 서로 마주보며 교사들이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함께 지낼 일년을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현실을 만들어갈 토대를 쌓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3학년,4학년 선생님들이 절기와 생태에 대한 고민을 함을 알아차렸고, 함께하는 교내전문적학습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동아리에서도 절기놀이에 대한 수업을 함께 고민해주시며, 더 풍성한 활동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 2. 내다보기

3학년의 사계절을 품GO 전문적학습공동체와 4학년의 자연과 삶을 가꾸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학부모님들의 절기놀이동아리가 함께 생태활동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며 함께 이 고민을 끌어가주실 선생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초록지렁이 유종반 선생님과 일년 연수를 기획하여(일년 6-8회) 다른학년의 관심있는 선생님들도 함께 하며 때를 알고 해를 살아가는 자연의 흐름과 아이들의 활동을 연결짓고자 하는 고민을 확장합니다.

입춘(드는봄): 봄은 어떻게 맞을까요?<sup>1)</sup>

우수(봄부름비): 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경칩(깨어날봄): 왜 잠에서 깨어나야 할까요?

춘분(온봄): 봄은 어떤 계절일까요?

청명(맑은봄): 무슨 꽃을 피울까요?

1) 때를 알다 해를 살다-생명살이를 위한 24절기 인문학,유종반 지은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2019 발췌

곡우(씨앗비): 무슨 씨앗을 심을까요?  
 입하(드는여름): 여름은 어떻게 맞을까요?  
 소만(초록가득): 내 안에 무엇을 채울까요?  
 망종(풀씨가울): 풀들은 왜 일찍 열매 맺나요?  
 하지(온여름): 여름은 어떤 계절인가요?  
 소서(작은더위): 더위는 왜 있을까요?  
 대서(큰더위): 더위를 어떻게 보낼까요?  
 입추(드는가을): 가을은 어떻게 맞을까요?  
 처서(가는더위): 가을은 어떻게 올까요?  
 백로(맑은이슬): 열매는 어떻게 익을까요?  
 추분(온가을): 익은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로(찬이슬): 열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상강(서리내림): 단풍잎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입동(드는겨울): 겨울은 어떻게 맞이할까요?  
 소설(물얼음): 겨울은 어떤 계절인가요?  
 대설(눈내림): 눈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지(온겨울):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소한(센추위): 추위는 왜 있을까요?  
 대한(끝추위): 추위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매 절기마다 주는 자연의 질문을 함께 나누며 아이들과 자연과 삶을 연결짓는 활동을 고민하는 동료선생님들이 늘 삶에 힘이 되어줍니다.



3,4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만남



3,4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배움



3,4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들이



3,4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 3. 연결짓기

다음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한 수업사례입니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이 바뀔때마다 학교 근처 만월산 생태나들이를 통해 자연을 느끼고 자연이 주는 질문과 내 삶을 연결지어보고 실천하고자 하며 배움과 나눔이 함께 일어납니다. 연결짓기는 만월산 나들이를 통해서도, 운동장텃밭가꾸기를 통해서도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절기놀이를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 <만월산 봄숲 보물을 찾아서>4월 4일-5일

수업 주제 설명- 나는 나다운가? 함께 살아가는가?

자연은 자연답게. 우리도 우리답게!

1. 절기노트 이름 정하기
2. 절기노트 표지 꾸미기
3. 우리는 오늘 보물을 찾으러 갈 것이다. 어떤 것이 보물일까?

-봄에만 볼 수 있는 것들. - 자연 속 보물

-자연에 초대받은 우리! 산입구에서 들어갈 때 항상 조용히 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자연 친구들이 방해받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초대받는 자세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 이웃 중엔 아침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을 잘못자는 갓난아기가 있을 수도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면 아이들의 나들이는 조금은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찰 방법! 오감으로. 눈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귀로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코로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입은 .. 위험하니까 맛보지는 않도록 해요.

-〈활동1〉 우리 반 나무 정하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살펴보기. 보기만 하기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하기

-10분 동안 자세히 관찰한 것을 눈에 보이는대로 그리기

〈활동2〉 봄숲 관찰하기

-봄에 볼 수 있는 색깔은 무엇이 있나요?

-자료로 다양한 꽃과 나무들 관찰하기

〈활동3〉 자연물로 꾸미기

-자연물을 일부러 꺾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떨어진 것만을 이용한다.

-자연물을 구하기 힘들 때는 떨어진 자연물을 일부 이용하고 나머지는 색연필로 채워나간다.

교실활동 절기노트에 글쓰기

무엇을 보았나요. 어떤 냄새가 났나요? 무엇이 기억에 남나요?

풀들도 꽃들도 다들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 살기 보다는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귀하고 나답게 나의 모습을 지켜 사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이다를 새기고 돌아옵니다.

### <우리 나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름 만월산 등산하자!>6.12-6.13

수업 주제 설명- 여름 만월산 탐방가기 봄에 갔던 것과 비교해 보며 여름 산을 만끽해보자!

〈활동1〉 자세히 관찰한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더위와 벌레 관계로 20분 정도 앉아서 그리고 사진 찍어서 학교에 와서 자세하게 그려보기





#### 〈활동2〉 여름 숲 관찰하기

- 봄과 달리 여름은 어떤 색이 가장 많은가요?
- 저번에 왔을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점 이야기 해보기
- 다양한 새 소리 듣고 구별해보기

#### 〈활동3〉 만월산 올라가기

힘들어도 친구들과 웃으며 산에 올라가 보기

산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불편하지 않게 한 줄로 다녀오기

다녀와서 절기 노트에 여름 산 탐방하고 난 후의 소감을 적어보기

아이들과의 계절별 나들이는 봄,여름을 이어 가을, 겨울에도 쭉 이어집니다. 나들이 전 3,4학년 전학공선생님들이 유종반선생님과 먼저 전학공모임을 통해 절기생태에 대한 배움 후 활동을 고민하고 서로 나누어주십니다.

#### 〈우리반 텃밭 가꾸기〉

운동장에서 하는 텃밭활동도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절기, 생태에 대한 배움과 나눔의 장이 됩니다. 봄에 모종을 나누고 심고 수확하고 가을에 다시 무를 심고 수확을 준비합니다.

방토1 방토1	오이2 오이2	오이4 오이4	방토4 방토4	오이5 오이5
방토1 방토1	오이2 오이2	오이3 오이3	방토4 방토4	오이5 오이5
방토1 방토1	오이2 오이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오이5 오이5
방토1 방토1	오이2 오이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오이5 오이5
방토1 방토1	오이7 오이7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오이5 오이5
방토1 방토1	방토2 방토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방토5 방토5
방토1 방토1	방토2 방토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방토5 방토5
방토1 방토1	방토2 방토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방토5 방토5
방토1 방토1	고추2 고추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방토5 방토5
방토1 방토1	고추2 고추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방토5 방토5
방토1 방토1	고추2 고추2	방토3 방토3	방토4 방토4	방토5 방토5

반별로 모종 나누기



우리반 모종에 주기 마다 물주기



우리반 텃밭 팻말 만들고 모종 심기



수확한 채소 나누어 먹기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절기 놀이〉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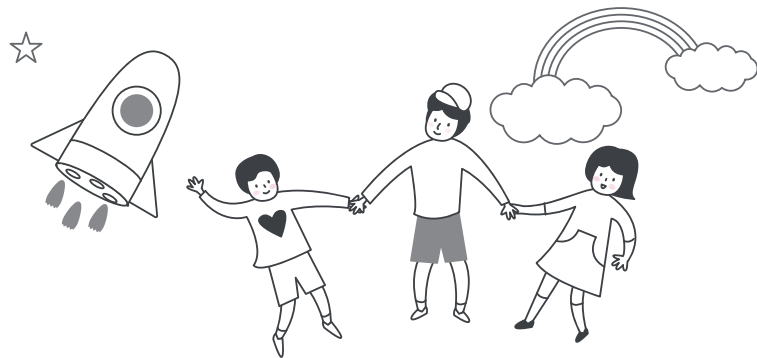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관련 이야기 알고 노래 배우기
- 여우야 여우야 놀이 해보기
- 여우야 여우야 놀이 가사 바꾸고 놀이 해보기

▶ 컵방울 놀이



- 컵방울 유래 알고 컵방울
- 만들기
- 친구들과 즐겁게 컵방울
- 놀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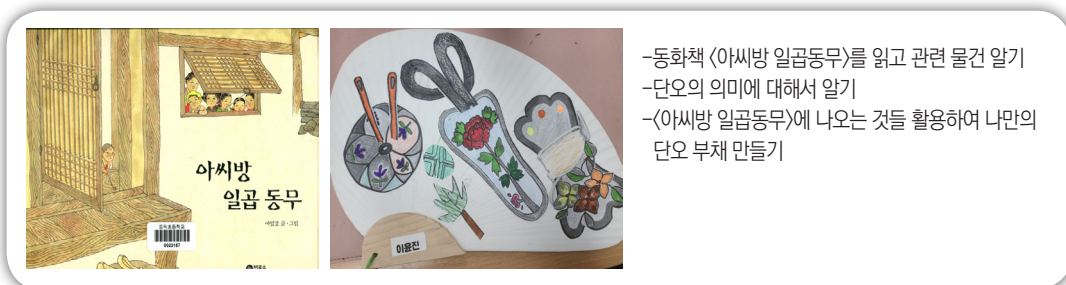


### ▶ 전통 탈 만들기



- 탈 관련 동화책 <아무도 모를 거야>를 읽고 관련 탈 만들기
- 빈 탈에 점토를 붙이고 그 위에 한지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살려 말뚝이/양반/각시탈 등 만들기
- 만든 탈로 은을 탈춤 참여

### ▶ 단오 부채 만들기



- 동화책 <아씨방 일곱동무>를 읽고 관련 물건 알기
- 단오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 <아씨방 일곱동무>에 나오는 것들 활용하여 나만의 단오 부채 만들기

# 열정 가득 전문가, 관교 B·T·S 이야기

인천관교초등학교 교사 한정선

## 1. 들어가며

지난 2월 말, 한 해를 함께 지내게 될 동학년을 만났고, 자의 반 타의 반 1학년에 모이게 된 우리 네 명의 담임은 기왕이면 알차게, 즐겁게 한 해를 보내자 하는 열정 만큼은 똑같았다.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1학년 꼬마들의 마음과 같이 4명의 담임이 바쁘게 움직이며 엮어간 협력과 공생의 시간, 8개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등교로 1학년 담임들은 기본생활습관 및 기초 한글, 수학 지도에 힘쓰며 달려왔고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보았다.

## 열정 가득 전문가 관교 B·T·S

### 열정 가득 전문가 관교 B·T·S



책놀이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소통&니눔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책날개 입학식 운영 및 아침 독서활동 운영</li><li>▪ 주 1회 도서관 활동 및 책마음 프로그램 운영</li><li>▪ 독서동아리 활동으로 책놀이 공유, 독서 환경 조성</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학년 교육과정 연수 및 재구성으로 미션 도전</li><li>▪ 기초 기본에 충실한 교수·학습 지도</li><li>▪ 눈높이 통합수업 및 마을연계프로그램 실시</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활발한 학부모 소통 및 학급 운영 정보 제공</li><li>▪ 동학년 자료 공유와 결과 나눔, 기록</li><li>▪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동반 성장</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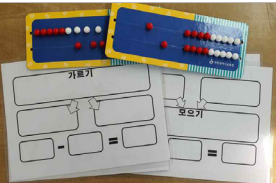





## 2. 관교 B·T·S 1학년 쌤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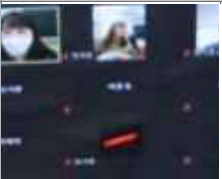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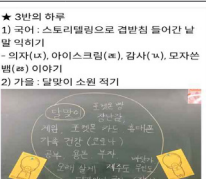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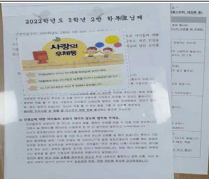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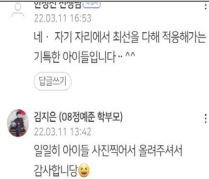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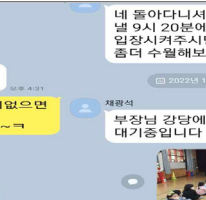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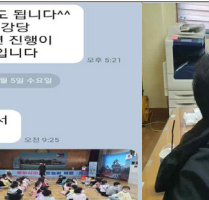


## BOOK적BOOK적 책놀이 전문가쌤

운영기간	학기 중 / 주 1회 이상 / 창체 및 교과 시간		
운영 내용	<p>▶ 1학년 '책날개 입학식'에서 교감선생님의 낭독으로 '학교 가기 조마조마'를 접하며 학교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지 낼 수 있도록 유도했고, 이후 <b>1학년 담임들에게 그림책은 중요한 수업 도구와 생활지도 도구</b>로 사용되었다.</p> <p>▶ 주 <b>1회 이상 학교 도서관 방문 활동</b>으로 책을 골라 빌려 읽고 서로 돌려읽거나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는 등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p> <p>▶ <b>국어,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그림책을 활용</b>하고 신문지를 접어 꾸민 '용기 모자'를 쓰고 기세등등하게 귀가하기도 하였다.</p>		
운영 모습			
	책날개 입학식	도서관활동	용기모자 수업
운영기간	학기 중 / 매일 / 아침 등교 시간 및 수업 중		
운영내용	<p>▶ 매일 아침,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b>그림책으로 하루를 열며</b> 학교는 친구들과 함께 마음 따뜻한 이야기와 즐거운 배움이 가득 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p> <p>▶ 공모사업 예산이나 가정에서 수집하여 <b>학년 그림책을 넉넉히 마련</b>해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정에서 가져온 책들로 교체하여 다양한 그림과 글을 접하도록 하였다.</p> <p>▶ 교간 교사독서동아리 활동으로 담임들 모두 인문소양을 높이는 도서를 선물로 구매해주었고 <b>책놀이 책활동 사례를 공유</b>하며 학급에서 활용하였다.</p>		
운영모습			
	독서동아리 당고게임	1학년 그림책 교실 환경	

## TRAINING UP 교육과정 전문가

운영 기간	새 학기 전, 학기 중 / 수시, 동료장학 기간 / 업무 시간 중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학기 준비로 바쁜 2월, 1학년 입학식 준비와 함께 교육과정 분석과 재구성 연수를 실시하며 한해살이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하였다.</li> <li>▶ 학기 중, 주중에는 수시로 학년 협의를 통해 수업 자료와 방법을 공유하며 1학년 맞춤 배움수업이 되도록 고민하였다.</li> <li>▶ 동료장학 실시와 협의로 상호 보완과 발전이 되도록 하였다.</li> </ul>		
운영 모습			
	2월 새학년 교육과정 연수	학년 협의	동료장학 협의
운영 기간	학기 중 / 수시 / 수업 시간 및 방과후 시간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은 그림책을 활용한 동기유발 등 눈높이 수업이 되도록 설계하고 운영하였다.</li> <li>▶ 기초 한글 지도를 위해 말놀이 동시를 활용하여 재미를 느끼고 자음모음 카드놀이로 한글의 구성 원리와 받침 글자를 익히도록 하였다. 자체 제작한 한글 워크북으로 하루 한쪽씩 글자를 써가며 차근차근 익힐 수 있도록 했다.</li> <li>▶ 기초 수학 지도를 위해 큐브 블록을 활용하고 개인별 레컨렉과 가르기 모이기 판을 만들어 사용하며 구체물로 수 감각을 기르게 하였다.</li> <li>▶ 마을연계 교육과정 및 공연, 체험활동 또한 통합교과의 특성을 살려 융통성있게 운영하였다.</li> </ul>		
운영 모습			
	눈높이 동기유발	한글 워크북 제작 활용	수학 지도자료 활용
			
	연중 꼬마농부 체험	5월 감사편지쓰기	동아시아 문화 체험 운영

## SMART CLASS 소통&amp;나눔 전문가샘

운영기간	학기 중 매일 / 주중 / 방과후, 업무 시간 중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해 3월 학부모 설명회는 비대면 줌으로 실시하며 학교, 학년, 학급 운영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였다.</li> <li>▶ 학급 운영 모습을 매일매일 알람장을 통해 공유하며 수업시간 모습, 놀이 모습, 학교 행사 참여 모습 사진을 제공하여 학교 안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알람장을 통한 댓글 상담 및 특 대화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였다.</li> <li>▶ '사랑의 우체통'을 만들어 활용해 가정통신문을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서 1학년 아이들의 안내장 관리도 연습이 되도록 하였다.</li> </ul>		
운영모습	  		
	줌 설명회	알람장 및 '사랑의 우체통' 운영	sns 댓글 소통
운영기간	학기 중 / 수시/ 업무 시간 중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년 <b>단체대화방</b>을 통한 <b>실시간 정보 교류와 의견 수렴</b>이 되도록 하였고 학교에서는 방과 후 모여 그날의 수업과 다음 수업 자료 및 교구 구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li> <li>▶ <b>1학년이 처음인 담임과 경험자 담임이 섞여 있어</b> 학급별 교수학습 내용과 수준, 생활지도, 학부 모 대응 등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었기에 <b>더 자주 소통</b>하며 지냈다.</li> <li>▶ 특히 <b>학년 전체로 진행되는 행사</b>로 체육대회, 현장학습, 건강검진, 공연 문화체험 등은 <b>반별 시간과 동선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사전 설계를 치밀하게</b> 한 후 진행되도록 하였다.</li> <li>▶ 교구를 구입하거나 아이들 활동을 계획할 때도 다른 학교 사례를 마킹하고 아이디어를 더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진행하였다.</li> </ul>		
운영모습	  		
	학년 대화방	행사 및 교구 협의	



동료교사 및 교생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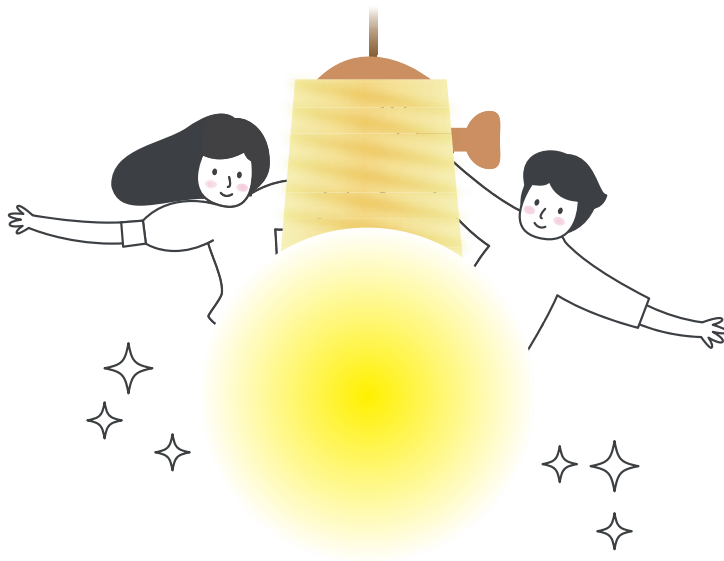
함께 성장하는 1학년 수업 시간

### 3. 맺으며

1학년은 처음이라서, 1학년은 경험이 좀 있어서...무엇이든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달려온 8개월의 시간. 서로에게 든든한 격려와 힘이 되었고 어떻게든 헤쳐나갈 탄력과 용기를 벌어들인 시간들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코로나19 시국에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여곡절을 거친 시간동안 네 명의 담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용기 모자’가 하나씩 씌어진 듯하다. 그것 또한 단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우리의 색깔로 우리만의 뭉침이었기에 가능했던 성장 아니었을까 싶다.

올해의 경험을 뿌리로 내년에 어떤 도전을 더 해볼까 설레는 마음으로 남은 학기를 잘 마무리해야겠다. 우리는 끝이다! 





# 함께 만드는 과정중심평가 연구회의 한걸음

인천고잔초등학교 교사 **홍문선**

## 1. 첫 도전, 공모전

우리의 첫 도전은 2022학년도 공모혁신사업으로 운영되는 초등과정중심평가 모델 개발 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을 수업과 연결해보려고 시도하며 모였던 전학공에서 만난 선배 선생님, 인천형 동아시아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한 후배 교사, 그리고 교사 독서동아리와 동학년 등으로 인연을 맺은 선생님들과 뜻을 모아 초등 과정중심평가 연구회를 구성하고 초등 과정중심평가 모델 개발 공모에 도전하였다.

‘초등평가워킹그룹’이라는 멋진 팀명을 만들고 야심차게 시작한 것은 바로 과정중심평가를 교실 현장에서 실천해보자는 교간형 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이다. 공모 선정과 예산 교부까지 설레이는 맘으로 첫 도전은 성공이었다.

## 2. 두 번째 도전, 비교 그리고 힘 빼기

공모에서는 모두 10개 팀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 각 팀의 대표로서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첫 번째 모임에서 나는 그만 위축이 되고 말았다. 3년 차 이상의 연구를 지속해 온 팀들의 멋진 연구 계획과 그동안에 축적된 연구 결과 앞에서 첫 걸음마를 이제 막 내딛으려고 하는 나의 도전은 기초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날부터 과정중심평가 모델 개발은 나에게 무거운 주제가 되어버렸다.

물론 과정중심평가는 학교에서도 연수를 받고, 교육청 주관의 연수도 이수하였다. 학기초에는 학년별 과정중심평가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협의회도 갖는다. 수업시간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이미 교실에서는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그리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내가 이미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이론을 탄탄히 하고 우리 연구회만의 색깔을 입히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큰 두려움 없이 도전한 것이었는데...

막상 과정중심평가 연구를 오래 연구한 팀의 앞서가는 연구 노하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말았다. 하고 싶었던 것은 3년차 연구팀들처럼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인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를 구분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먼저 선배님이자 동료 선생님을 찾았다. 한숨을 푹 내쉬면서 새로 시작한 연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공감과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또 연구회를 시작한 목적과 팀을 이끌어나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함께 나아가는 것이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팀원들과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에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더하고자 평가 전문 장학사님을 찾았다. 평가 전문 장학사님은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가 연수를 운영하시고 장학자료를 발간하시는 과정중심평가 전문가이자 나에게는 멘토 같은 선배님. 미래교육이라는 주제와 과정중심평가를 연결하려고 하면서 변혁적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수업과 평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민하며 작성한 연구방향에 대한 포부를 조심히 내밀었더니 연구 주제가 너무 거대하다는 피드백을 주셨다. 컨설팅과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에 대한 부담감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오히려 연구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연구회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었다. 고민이 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함께 방법을 찾았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통해 주제에 대해 너무 몰두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수업과 평가가 따로 국밥처럼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한 줄에 꿰 목걸이처럼 연결되고 다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작했던 첫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했다.

힘을 빼고 찬찬히 과정중심평가를 들여다보니 과정, 중심, 평가라는 말 속에는 이미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과정중심평가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론을 좀 더 탄탄히 하고 우리 연구회만의 색깔을 입혀 연구해보기로 하였다.

### 3. 세 번째 도전, 함께 나누기

우리 연구회의 핵심키워드는 바로 과정중심평가이다. 평가의 패러다임을 확장시킨 과정중심평가는 평가가 수업 속으로 녹아들어 수업과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 평가 결과가 다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 활동이 평가 대상이 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체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수업은 교과서 위주로 돌아가고, 교육과정은 결재 후에는 파일 속에 있다.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닌 평가가 수업의 활동으로 이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해력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을 통해 교사는 교사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팀은 전문성 앞에 당당한 사람들만 뭉친 어벤져스들이 아니다. 우리는 배움 앞에 당당한 교사일 뿐이다. 유영식의 ‘교육과정 문해력’, 반재천, 김선의 ‘과정 중심 피드백’을 함께 읽고 교육연수원의 ‘초등과정중심평가 역량강화연수’를 함께 들었다.

현장 선생님들의 생생한 사례 중심의 내용은 큰 도움이 되고, 또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떤 평가 방법을 쓰면 될까?’, ‘언제 평가를 하면 좋을까?’, ‘어떤 활동지를 사용하면 더 평가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팀은 모두 소속된 학교가 다르다. 각자의 학교, 학년,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주제 중심 또는 단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 활동과 평가 활동이 연결 될 수 있도록 수업안을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계획안을 가지고 1차 나눔 워크숍을 하였다. 부족한 부분이나 각자의 경험을 나누어 수정과 보안을 거쳤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교실로 돌아가 실천하고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결과물과 과정중심평가 기록물들을 가지고 2차 나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4. 네 번째 도전, 계속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

팀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긴 호흡으로의 평가가 학생의 발달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도달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시 배움과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끝까지 성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면서 학생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과정중심평가는 일회성으로 그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부터 수업과 평가가 하나의 연결선 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체성이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철저해야 한다. 수업에 대한 계획이 뚜렷해지니 중간 중간 옆길로 섰던 수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들어맞지 않았지만 성취기준을 도달하고자 하는 것과 수업과 평가 활동이 연결되어 수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얼마나 초초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팀원의 눈빛에서는 이상하게도 생기가 넘쳤다.

과정중심평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노하우도 나누었다. 교사 중심의 평가뿐 아니라 학생 간 상호 평가와 피드백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보안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혼자 계획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교과전담 선생님도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또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새로웠다. 마지막으로 과정중심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평가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 단원에서 평가의 성취기준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이를 평가하는 선생님도, 학생도 평가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한 단원에서 모든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영어교과와 경우 단위별 적절한 평가의 양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나누었다.

서로의 무용담을 나누듯 과정중심평가 실천 결과를 나누고 서로의 노하우를 배우며 교사로서 나도 우리 팀도 무럭무럭 자란다.

내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까?

벌써부터 멋진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가득하다. 